

인사말

대한민국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일본 나라문화재연구소는 오랜 기간 동안 문화재 연구와 보존을 목적으로 직원 간 상호교류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그 동안의 교류는 인적교류, 유적 답사 등의 단편적인 교류를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 수 십 년 이상 구축된 상호이해에 따른 우호관계를 기반으로 2005년에 양국은 '05.12~'11.3월까지 7개년 계획의 한일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협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공동연구는 양국의 연구소가 관심 있는 문화재를 대상으로 좀더 심도 깊은 학술 조사연구를 도모하기 위한 상징적인 진입으로 내딛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양국 연구원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었고 좀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현지방문, 연수를 통해 연구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이러한 공동연구 계획의 일환으로, 1차 공동연구주제는 상호협의를 의하여 韓國 古代王京 및 日本 古代都城의 形成과 發展過程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번 『한일문화재논집 I』은 그 동안의 성과를 담은 논문집입니다. 여기서는 한일의 도성제 및 원지의 비교연구, 고대 건물지 정비방안, 도성이나 사원 출토 유물의 비교연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의 논문집이 초석이 되어, 2009년도 2차 논문집에서는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소는 나라문화재연구소와 공동연구를 꾸준히 추진하여 우호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한편, 연구의 범위와 질적인 측면에서도 그 연구의 영역과 수준을 계속 확대제고해 갈 것입니다.

공동연구는 양 연구소의 학술적 잠재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촉매제로서, 양 연구소가 발전하는 데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좋은 연구논문을 제출한 양 기관의 연구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2007년 12월

국립문화재연구소장

김 봉 건

序

これまで、大韓民国国立文化財研究所と日本国独立行政法人国立文化財機構奈良文化財研究所は、文化財に対する研究と保存を目的として、研究員を相互に派遣しあう交流を進めてきました。ただ、残念なことに今までの交流は人的な交流、遺跡踏査などの断片的な交流にとどまらざるをえませんでした。

このような限界を脱し、数十年以上つちかってきた相互理解による友好関係を基礎として、両研究所は2005年に、2005年12月から2011年3月までの7ヶ年計画の韓日共同研究を推進することを協約するに至りました。この共同研究は、両研究所が関心をもつ文化財を対象として、より深みのある学術調査研究を試みるための象徴的な第一歩となりました。

今回の機会を通じて、両国の研究員達はより幅広く相互交流に参加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のみならず、より計画的かつ体系的な調査と現地訪問、研修が可能となり、研究の機会が広がっております。このような共同研究の計画の一環として、第1次の共同研究論集のテーマは、相互の協議によって、「韓国の古代王京並びに日本の古代都城の形成と発展過程」に決定いたしました。

今回の『韓日文化財論集Ⅰ』は、これまでの成果をまとめた論文集です。韓日の都城制および苑地の比較研究、古代の建物址の整備方法、都城や寺址出土遺物の比較研究など多様な内容を扱っています。

この論文集が基礎となり、2009年度の第2次論文集では、より大きな研究成果が実を結ぶと確信しております。今後も、私たちの研究所と奈良文化財研究所は、共同研究を着実に進め、友好関係をさらに誠実なものとしていく一方で、研究の範囲や質的な側面についても、絶え間なく高めていく考えです。

共同研究は、両研究所の学術的な潜在力を高めるための触媒であり、互いに発展していくために重要な役割を果たすものと信じて疑いません。末筆ながら、忙しいさなか、優れた研究論文を提出していただいた両研究所の研究員達に感謝の意を表します。

2007年12月

大韓民国国立文化財研究所長
金 奉 建